

제6실 | 서적 | 호류지헌물장과 고금목록초

N-5: 호류지헌물장

756년 5월 2일에 봉어한 쇼무 천황의 명복을 빌며, 같은 해 7월 8일에 황녀 고켄 천황이 아버지 쇼무 천황의 유품을 도다이지 절 산하 18개의 절에 헌납했습니다. 이 헌물장은 당시 호류지에 헌납된 물품의 목록입니다. 연청색의 종이는 삼베로 만든 것이며 서체는 중국 당나라의 해서체입니다. 끝부분의 승려 5인의 서명은 모두 자필입니다. 종이의 바탕에는 18개의 천황의 옥쇄가 찍혀 있습니다.

N-18: 고금목록초

쇼토쿠 태자에 관한 전기나 호류지에 관한 기록을 적은 것으로, 일명「쇼토쿠태자전사기」라고도 합니다. 13세기 전반에 호류지 승려인 겐신이 상하 2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권은 스승인 다카노리가 전수한 호류지와 쇼토쿠 태자의 비전(祕傳)을 기록하였고, 하권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도네리(황족과 귀족을 시중들던 직책)인 조시마로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신이 조시마로의 직계 자손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겐신이 직접 가필하고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N-19: 고금목록초 사본

「고금목록초」를 무로마치 시대에 옮겨 적은 것이지만, 내용의 양과 순서는 매우 다릅니다. 현재는 상, 중, 하 3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6실 | 염직 | 다양한 기법의 염직품

아스카시대에 창건된 호류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살아있는 사원입니다. 이번 염직 코너에서는 <부처를 수놓은 비단>을 중심으로 아스카시대부터 무로마치시대에 걸쳐 호류지 헌납 보물로서 전해져 오는 염직품의 다양한 기법을 살펴봅니다. 자수와 금비단, 철직, 가스리(스친 듯한 무늬가 있는 천), 흘치기 염색 등은 이른바 고대 염직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늬와 함께 각각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하고 치밀한 기법에 주목해 봅니다.

N-32-2, 5: 부처를 수놓은 비단

가는 띠 모양의 비단에 머리 위로 높게 나부끼는 천의(선녀가 입는 옷)를 두른 천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강하게 끈 비단실을 사용하는 쓰기바리누이라는 기법으로 무늬의 윤곽선을 나타내고 내부를 세밀하게 채웠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무늬가 새겨진 매우 정교한 양면 자수입니다.

N-32-1: 부처를 수놓은 비단

천인의 모습을 표현한 자수 작품으로 ‘번죽’의 비단으로 추정됩니다. 번죽이란 사원을 장식하기 위해 걸었던 깃발 ‘번’의 하단에 달았던 여러 장의 비단을 뜻합니다. 번죽은 바람에 펄럭이기 때문에 양면 자수 기법으로 앞면과 뒷면 어느쪽에서도 무늬를 볼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이 비단은 바람에 펄럭이며 머리 위로 나풀거리는 천의(선녀가 입는 옷)의 무늬로 마치 하늘을 나는 천인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I-336-106: 연속된 구슬 원무늬 자수

사슬 모양으로 수를 놓는 사슬수 기법으로 큰 연속된 구슬 원무늬를 표현한 비단의 조각입니다. 이러한 무늬는 서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의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문화교류를 보여 줍니다.

I-336-1: 적색 바탕 사슴무늬 그림 능직비단 천개 드리개

끝을 예각 역삼각형으로 만들고 겹면과 안감을 봉합한 천개(법당의 부처 위를 덮는 단집이나 양산) 드리개입니다. 일본산 종이를 심으로 삼았고, 겉은 붉은 바탕 능직비단(무늬는 명확하지 않음)에 먹과 호분(조개껍질 분말 등을 이용한 안료의 일종)으로 사슴 비슷한 동물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N-312: 황색 바탕 파꽃과 산무늬 철직 비단 조각

색의 경계선에서 씨실의 방향을 시작한 부분으로 돌려서 수놓는 철직이라는 기법으로 십자와 산 모양

이라는 기하학무늬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파꽃무늬를 수놓아 표현했습니다. 철직으로 수놓은 파꽃무늬는 서아시아의 염직에서도 볼 수 있어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교가 융성했던 일본과 중국에서는 파꽃 형태를 보주(여의보주)로 받아들였습니다.

N-46-2: 갈색 바탕 사자와 동물무늬 비단 조각

경금(經錦)의 조각입니다. 입을 벌린 사자로 보이는 무늬 양쪽에 화염보주와 동물을 배치했습니다. 동물의 몸통에는 반점이 있고 등에는 화염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습니다.